



서울

● 1월 서울 소비경기지수는 (전년동월대비) -1.1% 감소

- 전년동월대비 -1.1% = 소매업의 기여도 -4.7%p + 숙박·음식점업의 기여도 +3.6%p

(각 업종별 기여도 = 각 업종별 기여율 × 소비경기지수 증감률, 소비경기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)

※관련 설명은 부록의 '기여도' 참조

- 1월 서울 소비경기지수는 숙박·음식점업의 기여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소매업의 기여도가 더 크게 감소하여 전월(22.12) 대비 감소로 전환(38%⇒-1.1%)

● (전년동월대비) 소매업 소비경기지수는 -7.0% 감소,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는 11.2% 상승

- 1월 서울 소매업 하위업종의 소비경기지수는 연료(23.9%), 무점포소매(1.4%)를 제외한 모든 7개 업종이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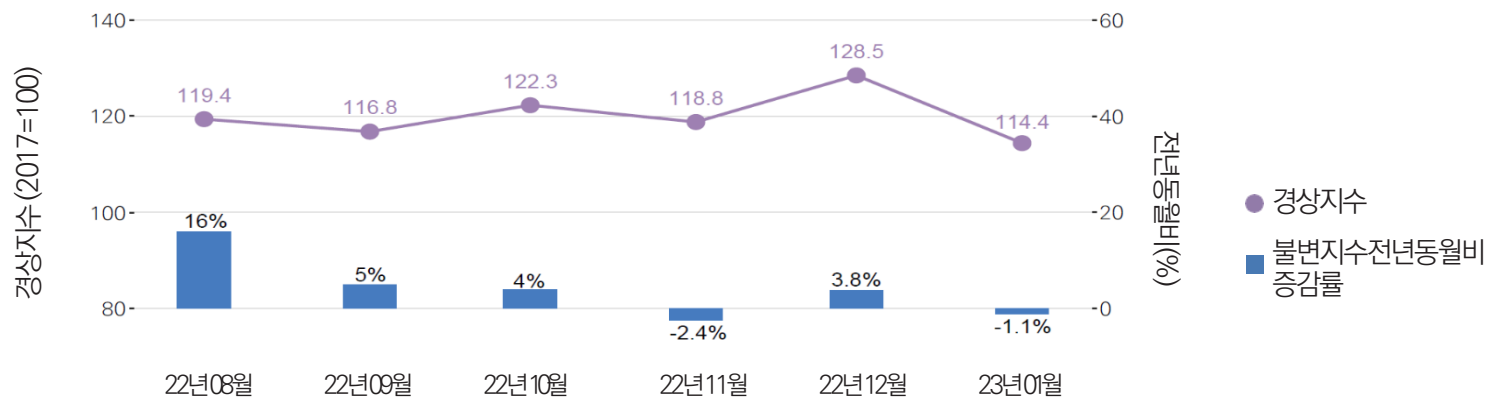
· 연료업은 전월대비 증가로 전환되었으나(-11.5%⇒23.9%), 무점포소매업은 전월대비 감소(5.0%⇒1.4%), 기타상품업은 전월대비 감소(4.9%⇒-0.2%)

· 하위 업종들 중, 기타가정용품(-29.8%), 의복·섬유·신발(-17.2%), 가전제품·정보통신(-16.6%), 문화·오락·여가(-12.2%), 음식료품·담배(-10.8%), 종합소매(-10.7%), 기타상품(-0.2%) 순으로 소비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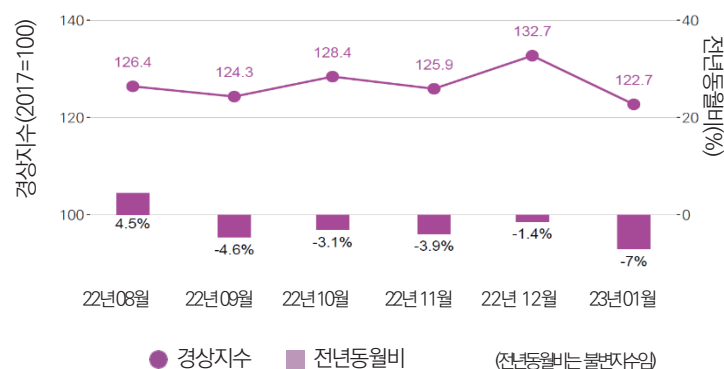
- 1월 서울 숙박·음식점업 하위업종의 소비경기지수는 주점·커피전문점업(29.9%)과 음식점업(14.9%)이 증가하였고, 숙박업(-15.3%)이 감소

· 주점·커피전문점업(23.8%⇒29.9%)과 음식점업(17.9%⇒14.9%)은 전월대비 증가폭 축소, 숙박업(-9.4%⇒-15.3%)은 전월대비 감소폭 확대

| 서울 소비경기지수



| 서울 소매업 소비경기지수



| 서울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

